

‘모럴해저드 제로’에 도전한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본 원고는 2009.4.22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나온다”

최근 미국의 AIG가 1,800억 달러(약 25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격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감정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일파만파로 일이 커지면서 미국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고 간 AIG 사태의 본질은 바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Moral Hazard)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 국 현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은행 경영진이 기업의 체질 개선은 하지 않고 경영자의 연봉을 인상하는 등 규모는 다르지만, 유사한 모럴해저드는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업계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간에 이해관계 및 보유한 정보의 질적, 양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모럴해저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내고자 저위험을 부담하길 원하는 반면, 고위험을 보유한 고객이 보험가입을 더 선호하게 되는 ‘역 선택’ (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모럴해저드 및 역 선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거버넌스’의 원리를 보험시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원리란, ‘통치’(Government)와 달리 중앙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보험시장에 거버넌스 원리를 적용하면 경영자, 주주, 고객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할 수 있고, 모럴해저드와 역 선택의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익성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보험에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된 개념이 바로 ‘공제(Mutual Aid)’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독일의 경우, 지자체는 전통적으로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회와 매우 긴밀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공제회는 민영보험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보상한도와 낮은 보험료 등 민영 보험회사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2007년도 독일 라인란트(Rheinland)주정부 산하 보험국(Verband der Oeffentlichen Versicherer)의 『2007 연차보고서』에 나오듯, 전체 독일 공제회의 시장점유율이 약 11%로써 알리안츠(17%)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역시 공익성을 추구하며, 민간보험사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재정지원 전문기관으로 1964년에 설립되었다. 보험회사와 달리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회원의 혜택을 극대화 하도록 운영되며, 보험료 역시 민간보험사 대비 70% 수준으로 저렴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건물시설물 및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공공청사정비 공제사업, 영조물배상 및 업무배상 공제사업, 연구지원 및 발간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재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묵묵하게 4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올해 공제 등록된 가입물건은 52만 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설립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재산 가액으로도 12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임을 고려하면, 공제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5월 옥외광고센터를 개소하여, 옥외광고사업 등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이를 통해 올해 예상되는 수익(약 150억)으로 자치단체 재정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새로 공제회에 부임한 필자는 작년 6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공익적이고 효율적인 공제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Vision 2020’을 선포했다. 이 비전은 TIP(Trust, Immersion, Pride)을 핵심가치로 삼아 최상의 공제 서비스 제공, 옥외광고 산업의 선진화, 건전한 자산운용, 창의적 조직문화의 정착, 고객만족 극대화라는 5대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제서비스 기관’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를, 앞서 얘기한 거버넌스의 장점을 활용해 ‘모럴해저드 제로 조직’, ‘공익과 생산성을 공생시키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이 우리 사회에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